

2012년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풀이

by 호이호이꿀떡

정답 체크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③	①	②	①	①	③	②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①	③	④	②	①	①	④
③									

문 1. <보기>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가취급여부·재산적 손해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손해배상과 성질상 차이가 있다.

- ① 우체국장
- ② 지방우정청장
- ③ 우정사업본부장
- ④ 지식경제부장관

답 ③

[p.45]

제3절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문 2. 국내우편서비스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우편자루배달
- ② 토요일일간신문배달
- ③ 본인지정배달
- ④ 우체국꽃배달

답 ①, (2)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 1. 등기취급
- 2. 보험취급
- 3. 대금교환
- 4. 증명취급
- 5. 국내특급우편
- 6. 특별송달
- 7. 민원우편
- 8. (삭제)
- 9. 모사전송우편
- 10. 우편주문판매
- 11. 광고우편
- 12. 전자우편
- 13. 우편물방문접수
- 14. (삭제)
- 15. (삭제)
- 16. 착불배달
- 17. 계약등기
- 18. 회신우편
- 19. 본인지정배달
-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 21.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 22. 선거우편

- ① 우편자루배달 서비스는 삭제되었다.
- ② 토요일일간신문배달 서비스의 이름이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으로 바뀌었다.
[p.32] 1. 월요일 배달 일간신문
- ③ 학습자료 본문에는 없지만, 뒤에 첨부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나온 선택적 우편역무 중 하나다.
19. 본인지정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 ④ [p.30] 제1절 우체국쇼핑 중 꽃배달 (우편주문판매)

문 3. 국내소포우편물의 취급조건과 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대 제한중량은 30kg이다.
- ② 노트, 사진, 거래통장, 통화는 소포로 취급할 수 있다.
- ③ 접수 시 내용품을 문의하고 우편물의 포장상태를 검사한다.
- ④ 보통소포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에 '소포' 표시를 한다.

답 ②, (④)

[p.14] 제3절 소포우편물

- ② 소포우편물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평범한 노트와 사진, 거래통장은 소포로 취급하나, **통화는 통상우편물**에 해당한다.
- ④ 지금은 삭제된 내용이다.

<오답 체크> ① [p.20]

소포우편물의 무게는 30kg 이내이어야 한다.

- ③ [p.15] 3. 소포우편물의 접수

문 4. 우체국택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포장불량으로 부패 혹은 파손 우려가 큰 물품 및 3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
- ② 파손, 분실 시 최대 30만원까지 보상한다.
- ③ 이용요금은 지역 구분 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한다.
- ④ 월 발송물량이 5개 이상일 경우 우체국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답 ①

[p.17 제4절 방문접수(우체국택배)

- ① 물품등기와 보험소포의 취급가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우체국택배 역시 소포우편물 규정에 따르므로, 300만원 이상의 고가품은 취급이 제한된다고 알 수 있다.

<오답 체크> ② [p.42]

소포우편물의 손·망실 한도액은 **50만원**이다.

- ③ 요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④ [p.39]

소포우편물의 요금 감액요건

- 1회에 2개(동일한 상품) 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또는 월 50개(동일한 상품)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우편물 중 우체국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소포 우편물(단, 발송인이 동일할 경우에만 적용)
-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1회에 1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 > 우체국택배는 방문접수에 해당하므로, **1회 10개 이상, 월 100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인 경우에 해당한다.

문 5. 봉투에 넣어 봉합하여 발송하는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위반 시 규격외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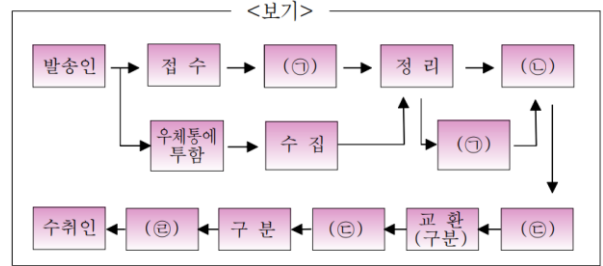
- ① 우편물의 무게는 최소 3.27g에서 최대 50g이다.
- ② 우편물의 봉투봉합 방법은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 ③ 우편물의 표면 및 내용물은 편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 ④ 우편물의 봉투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한다.

답 ①

[p.12] 규격우편물의 요건

규격외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크기, 무게, 봉투재질, 우편번호 기재,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문 6. <보기>는 우편물의 일반취급 처리과정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① 소인 | 체결 | 운송 | 발송 |
| ② 운송 | 수집 | 소인 | 발송 |
| ③ 소인 | 체결 | 운송 | 배달 |
| ④ 운송 | 수집 | 소인 | 배달 |

답 ③

[p.52]

- ㉠ 소인 ㉡ 체결 ㉢ 운송 ㉣ 배달

문 7. <보기>에서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보기>	
ㄱ. 송금환	ㄴ. 마그네틱 테이프
ㄷ. 마이크로 필름	ㄹ. 상품 견본
ㅁ. 상업용 서류	ㅂ. 가공하지 않은 금

- ① ㄱ, ㄴ, ㄷ, ㄹ ② ㄴ, ㄷ, ㄹ, ㅁ
- ③ ㄴ, ㄹ, ㅁ, ㅂ ④ ㄱ, ㄷ, ㅁ, ㅂ

답 ②

[p.72]

가.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

- 1) 업무용·상업용 서류, 컴퓨터 데이터
- 2) 상품견본,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상품(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나. EMS로 보낼 수 없는 물품

- 1) 신용카드, 동전 및 화폐, 송금환, 유가증권류, 금융기관 간의 교환 수표
- 2) UPU에서 정한 일반적인 우편금지물품
- 3)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 은, 백금과 귀금속, 보석 등 귀중품
- 4) 상대국가에서 수입을 금하는 물품

문 8.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과 필리핀이 공동 제의하여 1961년 1월 23일에 마닐라에서 창설대회를 개최하였다.
- ②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다.
- ③ 우편업무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우정직원의 상호교환 또는 독자적 파견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④ 지역 내 회원국 간의 우편관계를 확장, 촉진 및 개선하고 우편업무분야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답 ②

[p.61]

2. 아시아 . 태평양우편연합(APPU : Asian-Pacific Postal Union)

- ② 상설기관으로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국제사무국이 있는 것은 만국우편연합(UPU)이다.
 APPU의 상설기관에 대한 내용은 없고, APPU의 기관으로 비상설 기구로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 1년마다 개최되는 집행이사회, 아시아·태평양우정대학(APPC), 사무국이 있다.

문 9. 항공등기로 접수하는 국제통상우편물 중 항공부가요금만 징수하는 우편물은?

- ① 인쇄물
- ② 소형포장물
- ③ 우편자루배달인쇄물
- ④ 시각장애인용접자우편물

답 ④

④ [p.64]
시각장애인용 접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 면제이다.

문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우체국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이 지급보장된다.
- ② 우체국보험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우체국예금·보험은 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우체국예금은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 이자율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답 ②

-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오답 체크> ① 우체국예금·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 ③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자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 내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없다.

문 13. 금융경제, 과세,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채권시장에는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시장, 지방채시장, 회사채시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이 있다.
- ② 일반은행으로는 국민은행(KB),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IBK), 신한은행이 있다.
- ③ 모든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과세된다.
- ④ 고객확인제도는 고객별 신원확인, 고객의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답 ④

④ [p.149] 3-4. 고객확인제도(CDD)

<오답 체크> ① 채권시장에는 장기금융시장 중 하나로,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시장, 지방채시장, 회사채시장, 특수채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시장은 단기금융시장으로 채권시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고, 장기금융시장에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 등이 있다.

② [p.15]

설립목적에 따라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외국은행지점으로 구성된다.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 중소기업은행은 특수은행이다.

③ [p.143]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여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과세한다.

또한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도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 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문 14.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틈뚱우대저축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성 예금으로 예금액별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 ② 이웃사랑정기예금은 장기기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가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다.
- ③ 챔피언정기예금은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 최초 가입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 ④ 양도성예금증서(CD)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다.

답 ①

① [p.79]

틈뚱우대저축 (MMDA)

<오답 체크> ② [p.92] 이웃사랑정기예금

- 사회소외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사랑나눔실천자 : 장기기증(희망등록)자, 골수기증(희망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 농어촌지역 주민 : 읍면 단위 지역 거주자

- 가입기간 : 6개월 ~ 3년(월단위)

-> **최소 가입기간은 6개월**이다.

③ [p.90] 챔피언정기예금

가입 후 3개월 경과 시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2회**까지 분할해지가 가능하다.

④ [p.60]

양도성예금증서(CD)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대신, 채권시장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문 15. 현재(2012년 2월말 기준) 판매 중인 우체국보험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에서 갱신계약의 경우,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서 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한다.
- ③ [장애인전용]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에서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로 한다.
- ④ 에버리치상해보험에서 골절치료자금의 경우, 치아의 파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답 ③

- ③ [p.213]
3. [장애인전용] 무배당 어깨동무보험(2종)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로 한다.

<오답 체크> ① [p.218]

- 5. 무배당 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p.227]

- 7. 우체국안전벨트보험
수술급부금의 경우,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급부금만을 지급한다.

④ [p.216]

- 4. 무배당 에버리치상해보험
재해골절에서 치아의 파절은 제외한다.

문 16. 보험관련 세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저축성보험의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은 7년 이상 유지 시 보험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된다.
- ②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5년 이내 해지된 모든 계약은 해지가산세가 과세된다.
- ③ 장애인전용보험의 경우 동일한 계약 건으로 보장성보험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장애인전용보험소득공제를 받는다.
- ④ 보장성보험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 ④

④ [p.173] 1.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오답 체크> ① [p.174] 1. 저축성보험 차익과세

- 2004. 1. 1 ~ 2013. 2. 14 계약은 10년 비과세 기간 적용
- 2001. 1. 1 ~ 2003. 12. 31 계약은 7년 비과세 기간 적용
- 1998. 4. 1 ~ 2000. 12. 31 계약은 5년 비과세 기간 적용

② [p.176]

2013.3.1 이후 계약한 연금저축보험은 해지가산세과 없다>
또한 이전 계약한 경우라도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의 사유로 해지시 면제가 된다.

③ [p.174] 2. 장애인전용보험 세액공제

동일한 계약 건으로 보장성보험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보험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불가**

문 17.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 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 ②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생명의 보험'이라 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한다.
- ③ 보험계약의 무효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무효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청약 시에는 고지의무가 없다.

답 ②

- ② [p.19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자기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타인생명의 보험'이라 한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 하고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오답 체크> ① [p.206]

보험계약을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이 실효된 이후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p.199]
무효란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취소란 계약이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계약 이후에 취소사유의 발생으로 계약의 법률상 효력이 계약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 ④ [p.205]
부활계약 청구시에도 보험계약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문 18.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신보험은 보험기간을 정해놓고,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 ② 저축성보험은 생존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을 강화한 보험이다.
- ③ 연금보험은 연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다.
- ④ 교육보험은 교육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이다.

답 ①

- ① [p.170]
정기보험: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종신보험: 보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생을 통하여 언제든지 사망하거나 고도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오답 체크> ② [p.170] 라. 저축성보험

- ③ [p.171] 바. 연금보험
- ④ [p.171] 사. 교육보험

문 19.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People disagree about how soon the world will run out of oil, but it does not matter whether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or the next 150 years. Since oil is still going to run out, we cannot depend on it to meet our energy needs forever. Besides its limited supply, oil is an imperfect energy source. It pollutes the air, and it is inefficient when it is burned. There are much better fuels available. We just need to find cheaper ways to harness them.

- ① Better energy sources exist.
- ② The supply of oil will never run out.
- ③ Oil is an efficient source of energy.
- ④ Oil will run out in the next 20 years.

답 ①

해석) 석유가 얼마나 빨리 고갈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석유가 20년 안에 고갈되는지 150년 안에 고갈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석유는 여전히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원히 석유에만 의지할 순 없다. 그 제한된 공급량뿐 아니라, 석유는 불안정한 에너지 자원이다. 그것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연소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다. 이용 가능한 더 좋은 연료들은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돈이 덜 드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단어) harness 이용(활용)하다

- ① 더 좋은 에너지 자원이 존재한다.
- <오답 체크> ② 석유의 공급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 ③ 석유는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이다.
- ④ 석유는 20년 안에 고갈될 것이다.

문 20. 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If you want to be successful in global business, you must understand the cultures of other countries and learn how to adapt to them, or change your practices in different cultures.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not make business decisions that are based on misconceptions. One misconception is ethnocentrism, the belief that one's own culture is better than other cultures. Ethnocentrism can exist in an individual or in an organization. To (㉠) ethnocentrism,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ifferent elements of culture, including language, religion, values, customs, and material elements.

- ① learn
- ② adapt to
- ③ ignore
- ④ avoid

답 ④

해석) 당신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반드시 이해하고 어떻게 그 문화에 적응할지 배워야 하고, 다른 문화 속에서 당신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오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해 한가지는 자기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 뛰어나다는 자문화중심주의이다. 자문화중심주의는 개인 또는 조직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자문화중심주의를 (㉠) 위해, 언어, 종교, 가치, 관습 그리고 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문화의 다른 요소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단어) misconception 오해
ethnocentrism 자문화중심주의
religion 종교 adapt to ~에 적응하다

- ④ 피하기
- <오답 체크> ① 배우기
- ② 적응하기
- ③ 무시하기